

경제위기 속에서도 경제개혁 모색 계속돼

2001년 경제학계의 성과와 과제

안석교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는 아직도 외환·금융위기의 여진 속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의 충격 이후 4년간 그 극복을 위한 제도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나 개혁은 아직도 미완의 장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상시 개혁'으로 냉각돼가고 있다.

급속하게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위기 극복'의 낙관론이 확산되는가 싶더니 지난해 말부터는 경기도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주변의 경제환경 역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경제는 장기불황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 경제 역시 부시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윤곽을 드러내기도 전에 테러 충격 속에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그만큼 불안한 여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자유주의 제도 정립 위한 논의 활발해

이런 상황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제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경제학계의 모색은 금년에도 경제학도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다. 《한국의 제도개혁 과제와 방향》(좌승희 외, 한국경제연구원)은 바로 이런 탐색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다. 정치경제학 내지는 제도와 경제발전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소장경제학자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펴낸 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 정치제도와 경제자유화의 연계성에 대한 분석부터 교육, 노동, 사회 보장 부문에 이르기까지 시장 친화적 개혁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자유주의에 입각한 이론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시민단체나 이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유주의의 변용논리와 이에 기초한 제도 정립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돼왔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세계화에 따른 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에 대한 비판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특히 NGO들의 초국가적 연대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의 경제학자들이 자유와 정의에 기초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고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값진 노력이 아닐 수 없다.

경실련에서 활동중인 경제학자들이 펴낸 《한국사회의 비전 21》

(시민의신문사)은 바로 그런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소산이다. 이 책에 실려 있는 〈자유와 상생의 사회〉 〈21세기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등의 글은 바로 자유시장경제의 냉혹성에 휴머니즘을 접목시키기 위한 고뇌의 여과과정으로 보인다.

이런 주제들은 연구의 성격을 살펴볼 때 완결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가령 경제제도의 개혁이 법치문화의 정립을 선결요건으로 하는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좀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법치의 실현은 비단 시장경제제도의 정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도 요구되는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 노·사문제에 대한 연구 역시 좀더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평등에 기초한 노사관계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갈등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한 규명이 그것이다.

집단간 갈등 해결 위해선 학제간 연구 필요해

여러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 감속성장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한세대 이상 지속된 고속성장이 종료되고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각 이익집단들이 과거와 같은 실질소득의 상승을 요구하는 경우 분배 몫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익집단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치적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기제를 형성해야 하는 것은 향후 학계에 부과된 주요 과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강구하는 데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간의 학제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

안석교 교수는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박사학위(경제학)을 받았다. 한국동북아경제학회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한양대 경제학부에 재직중이다. 지은 책으로 《사회적 시장경제》(공저),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넘어서》 등이 있다.